

출판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李容權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되 위에서 말한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출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법 취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출판지원, 도서구입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출판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출판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출판금고’가 이미 설치운영돼 오고 있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출판인 스스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 아래 1985년부터 3년간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90억원을 금고에 지원함으로써 출판금고의 기금이 1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출판금고에서는 이 기금으로 연간 250개 출판사에 출판자금을 융자하고 있고, 또 기금의 연간 이자 약 10억원을 가지고 「출판저널」 발간, 출판연구소 사업, 우수도서 및 청소년도서 구입배포, 해외도서 전시회 참가, 출판기술인 해외연수 등 출판계의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진흥은 이와같은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출판진흥은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어 싼 값에 많은 국민에게 읽혀야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풍토가 만들어져야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수한 출판물이 나올 수 있는 출판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첫째는, 공공도서관의 증설과 모든 도서관에서 우수도서를 의무적으로 구입, 비치하게 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시설 가운데 도서관이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1988년 도서관협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766개소의 각급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 우수도서 1권씩만 비치한다 해도 출판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출판기업의 지원이다. 출판금고에서 지원하는 연간 약 50억원의 출판 융자금은 연간 출판 금액의 몇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출판이 한 나라의 문화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출판업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저리자금 융자혜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출판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출판기업은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저작권질서의 확립이다. 1987년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저자, 출판업자, 독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될 점이 너무 많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분쟁조정내용을 보면 저작권법에 의해 당연히 해결될 문제까지도 신청되고 있어,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신청이 연간 10수건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의 출판은 그 나라 문화발전의 기틀이다. 우수한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여러 국민들에게 읽힐 때 출판문화는 향상되고 나라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표지인물 2 趙廷來의 「太白山脈」을 말한다/金鍾會

특집 4 大河를 이룬 80년대 대하소설/金炳翼

6 80년대 이념도서가 추구한 ‘이념’

8 在外韓人 작품, 어떤 것이 나왔나

10 全集출판의 수준 높은 ‘개인전집’/朴海鉉

서평 12 S. E. 화이너 「현대정치와 군부」—배병삼

W. K. 피거슨 「西洋近世史」—李相鉉

13 A. 노이어마이어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서성록

金容權 「해방기 한국시문학사」—韓啓傳

14 서우석 「음악과 현실」—이장직

안병섭 「영화적 현실 상상적 현실」—변재란

15 이청준 「自由의 門」—李東夏

송 영 「비탈길 저 끝방」—윤지란

지금 독서중 16 李石壽 단편집 「새벽빛」—洪아우구스타 修女

바바 하리 다스 「성자가 된 청소부」—회사원 羅允重씨

17 어빙스톤 「빈센트 반 고흐」—교사 李達完씨

지금 제작중 17 국내 최초의 「英語學大辭典」—新雅社

화제작의 주변 18 40년만에 다시 읽은 소설 「40년」/朴婉緒

화제의 책 19 영상으로 재현된 「굿판」의 현장

명상의 깊이 갖춘 「산악 에세이」

20 자유주의 옹호하는 두권의 책

출판화제 21 노벨문학상 「열기」 시들해졌다

국내 최초의 출판일리스트 집대성

11 출판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책」

세미나 22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장전략을”

선정도서 24 '89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선정목록

세계의 출판 28 傳記의 세계에 페미니즘 바람·外

30 새로 나온 詩集

31 어린이책 들춰보기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퀵즈/정기구독 안내

社告 7 본지 반포가 인상 안내

표지사진/구본창

알림

다음호 ‘신년호’로 발행

「출판저널」 이번호(제52호)는 예년과 같이 송년 특집호로 발행합니다. 그에 따라 다음 제53호는 1990년 1월 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